

경제

“워크아웃 조기졸업...새 역사 만들자” “올 현대·기아차 633만대 생산·판매” “협력업체와는 동반관계...적극 지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 매듭짓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금호아시아나 1관 문호아트홀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정상화에 청신호를 밝힐 수 있었다”며 “우리 그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전 계열사가 괄목할만한 경영실적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금호타이어도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영업과 생산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고, 금호건설은 공공부문에서만 1조원 이상 수주했으며, 대한풍운은 글로벌 물류기업이 되기 위한 합찬 전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해를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고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65년의 전통과 자력이 있다”며 “창립 당시부터 변변히 내려온 ‘집념’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경영목표달성은 물론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역사의 자랑스러운 원년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3일 올해 633만대의 글로벌 생산·판매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2011년 시무식 신년사에서 이런 목표를 밝히고, 올해 경영방침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다. 정 회장은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와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사회공헌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강화 등을 올해 주요 경영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2011년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올해 633만대의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여러 국가에 있는 생산공장과 판매본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국제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의 경영 절차와 제도를 재정비하고 고객과 인재를 중시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조직문화를 전 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품질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고 친환경차 분야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원천 기술과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철 부문의 경우 지난해 가동한 고로 1.2호기에 이어 올해는 고로 3호기 건설을 추가 착수해 연간 1천200만 고로생산 체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신묘년 첫 화두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투자를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대회에서 “(삼성엔) 주주와 고객, 협력업체는 물론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기부와 봉사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므로 정성을 담은 기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한 봉사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신년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

나 “올해는 21세기 (첫 10년)의 첫해인 만큼, 보통과는 달리 더 열심히 더 깊게 넓게 가야 한다”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데 희망을 갖고 전진하면 밝은 사회가 오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업과 제품은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과 제품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을 혼자서 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가까이 협력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연합뉴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첫날인 3일 오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시 광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해 정책자금 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소 정책자금 접수 첫날

광주·전남 12개사 108억 신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첫날인 3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월분 368억원 중 108억원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 본부가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 접수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12개사 108억원의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1월분 368억원 중 30% 가량으로, 지난해 접수 이틀만에 정책자금이 동난 것과 비교하면 한산한 편이다. 올해 광주·전남에 배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2184억원으로 지난해 2158억원보다 26억원(1.2%)이 증가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창업과 개발 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건실 경영 안정 자금 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창업·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지역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조선산업 등에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금리 4% 전후(기준금리 3.28%에 업체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며 시설투자는 3년 거주 5년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주 3년 상환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지나해에는 가아차 광주공장의 스폰서십 신차 출시에 따른 설비 확충과 삼성광주전자의 공격 마케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많아지면서 ‘올해는 지역 주력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생산 증대 계획은 없어 정책자금 신청 폭보다는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나해에는 가아차 광주공장의 스폰서십 신차 출시에 따른 설비 확충과 삼성광주전자의 공격 마케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많아지면서 ‘올해는 지역 주력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생산 증대 계획은 없어 정책자금 신청 폭보다는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제조업체 10곳중 6곳

“올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광주상의 100개사 조사

광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혀, 인력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고용포럼이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61.1%였다. 38.9%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인원 규모와 비교해 13.2%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의 매출 신장세가 지속되고 전자제품과 금형 및 광산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에서의 생산라인 증설, 관련 사업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업종은 음식료(54.2%), 전기전자(39.1%), 기계(30.9%), 비금속광물(11.4%), 자동차(10.9%), 1차 및 조립금속(8.8%)이며 채용규모를 줄일 계획인 업종은 인쇄출판(-16.7%), 화학·플라스틱(-14.8%), 섬유·의복(-0.7%) 등이었다. 채용 확대의 원인으로는 퇴직·이

직 등 결원보충(54.9%)이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증대(13.8%),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확보(13.7%), 매출·수익 증대 예상(9.8%) 등의 순이었다. 또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근무의욕(48.7%)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성(19.2%), 조직 적응능력(19.2%), 전공 지식(11.5%), 외국어 능력(1.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역 기업들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핵심 인력 확보의 어려움(47.5%), 채용직원의 조기 퇴직(26.9%),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근무여건(17.9%), 낮은 기업 인지도(7.7%) 등을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70.08 (+19.08) 코스닥지수 518.0 (+7.36) 금리 (국고채 3년) 3.50% (+0.12) 원·달러 환율 1,126.50원 (-8.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전남농협 50돌... 고객 사은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해 첫 영업일인 3일 전 영업점에서 50번째 방문 고객에게 농산물과 떡, 음료 등을 제공하는 고객 사은행사를 열었다. <사진> 농협은 올해 새로운 50년을 함께 할 미래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창립 50주년 기념등이 탄생 축하, NH-우먼(Woman) 감동충동 토끼와 함께, 미래 고객 2011 등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1961년 8월15일 법률



제670조로 공포된 농협법동조합법에 의해 구 농협과 농업은행이 통합된 종합농협으로 발족, 50년을 이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얼굴

“주택연금 등 금융 지원 최선”

박경순 주택금융공 광주전남지사장



“지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보급자 리론·주택연금 등 다양한 주택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일 부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 박경순(53) 지사장은 “지역 출신인만큼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지사장은 여수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3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했으며,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멤버로 주택신용보증팀장, 팀장, 팀장실장, IT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건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광주은행 신분포동, 대인동 상가사건너편)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제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가구주택 서구 금호동 3층 다가구건물 대지65평 건평114평 2억 4천만. 근린주택 나주시 송월동 1층사무실 2층주택 대지63평 건평84평 1억 1천만. 전원주택 서구 송촌동 2층주택 대지56평 건물66평 원천저수지부근 9천 9백만. 주요소용지 광산구 장덕동 내대지(현잡종지)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냉동창고 나주시 세지면 3층 토지3690평 건물3550평 냉동창고및공장 감정가60억 최저가7억. 기타·공장 *광산구 비아동 토지265평 건물360평5억 8천만 *서구 세히동 토지 183평 건물 17평 서광주역부근 1억 6천만. *금구함 서구일대 세차장 매수원함 *이외 상담물건, 산방 다량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15,000평 ▶건 물: 9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2400평(계획관리) ▶건 물: 580평(동력200k)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700평▶일반공업지역: 8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통림2지구 건너편) ▶건 물: ①상가 30평, 창고80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2000평(생산복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부동산경매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Table with 4 columns: Auctioneer, Property Name, Area, Price, etc.]